

시론



배상도 목사
신촌은혜로교회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 중에 ‘자아 비대증’(Ego Hypertrophy)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자기중심적인 망상을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로, 독선적인 태도로 자신만이 옳다고 강요하며, 타인의 행동을 억압한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만을 우월하게 여기며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며, 작은 행동에도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며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흥분한다.

그러면 이런 자아 비대증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요나 4장 1절~11절에 요나의 이기심은 철저한 자기중심성, 선민 사상과 편견, 그리고 사명보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 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다. 그는 불평할 때마다 “내가”

요나를 통해 본 자아비대증

라는 말을 반복하며,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보다 자신의 체면과 평판을 먼저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쳤다고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한다. 우리 신앙생활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

또한 요나의 이기적인 마음은 선민사상과 증오심에 드러나는데,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앗수르(니느웨)의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길 만큼 배타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생각해보자,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큰 풍浪에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자기가 용서받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용서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중적태도를 가진 태도인가? 요나는 사소한 것에 매우 민감하다. 자기를 위해서는 박영할 하나도 귀중하게 여기나,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에는 별 관심이 없다. 자신은 조금만 기분 나빠도 화를 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까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상처나 힘든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심각한 자아비대증에 걸려있는 것이다. 우리도 자칫하면 자아비대증에 걸리고 이기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다.

당신의 자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특별히 “온라인 자아와 오프라인 자아 중 실제 모습과 가까

운 ‘진짜 자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10대와 20대는 각각 22.3%, 23.8%가 ‘온라인 자아’를 꼽았다. 40대(10.8%), 50대(13.5%)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최재봉 성균관대 서비스융합디자인학과 교수는 “PC 시대엔 컴퓨터를 켜야만 온라인 자아와 접속할 수 있었지만, 스마트폰 세상이 오면서 24시간 온라인 자아에 접속하는 세상이 됐다. 자연스럽게 온라인 자아의 비중이 커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온라인 자아(디지털 세상에서 존재하는 자아)’와 ‘오프라인 자아(현실의 자아)’의 혼란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요즘 스마트폰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은 세상 사람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심각하다.

자아가 비대해지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비대해진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기심은 자기 삶을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남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라고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가 말한다.

나만, 내 가족만, 민족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자아비대증에서 벗어나는 성결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란다.

신앙인의 역사의식(歷史意識)

인간은 사회적 존재요, 인간사회는 연속된 역사가 만들어 낸 집단이다. 인간은 역사의식 속에서 과거의 일을 알아서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를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여 인간과 사회의 존재의 의미를 해석하므로 미래의 방향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과거의 사건과 경험을 기억하고 배우는 것과 또한, 현재를 바르게 해석하는 지혜와 능력,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을 갖는 것이다. 역사를 통하여 배우지 못하면 그 역사는 반복되며, 역사는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게 된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말한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역사를 선조들에게 물어보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신앙 역사 속에서 이해할 일들을 살펴봄으로 역사의식을 갖도록 해야 하겠다.

먼저, 이스라엘의 다윗왕의 역사의식을 살펴보자. 다윗은 사울처럼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이었다. 그 증거가 그는 조상 아브라함부터 천년의 역사(歷史)를 공부하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지역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 만국을 통치하시는 그의 보좌를 두실 곳, 즉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실 곳을 알았다. 그래서 다윗은 여부스 족속 지역을 점령하고, 그곳을 예루살렘(평화의 도성)이라 부르고, 도성 수도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성전 건축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또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온 세계 만민을 통치하시는 보좌로 삼고자 한 것이다. 그러한 역사적 책임 의식은 솔로몬을 통해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는 자기 욕심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식(歷史意識)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목적을 깨닫고 이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잘못된 지도자는 자기의 뜻을 앞세우며, 공동체는 흔들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지만, 참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자이다. 또한 신약시대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기독교의 초대 예루살렘교회의 총회를 통하여 결정지어진 사건은 유대주의 신앙과 초기 기독교 신앙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초대 예루살렘교회 총회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구약성경의 말씀(약 9:11-12)을 근거로 해결하였는데(행 15:15-18),

성경은 역사를 우연의 연속으로 보지 않는다. 성경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며, 인간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주장하시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진화하신다. 그래서 성경적 역사의식이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묻는 자세라 할 것이다. 역사의식이 약해지면 정통성이 무너지고,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물질주의와 순간주의에 빠지게 된다. 자기 삶의 의미와 뿌리를 잃으면 방향을 잃게 된다. 건강한 역사의식을 가지려면 먼저, 기억해야 한다. 과거의 실패와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배워야 한다. 역사 속 인물과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책임져야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 바른 유산을 맡겨야 한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역사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야 한다. 신앙인의 역사의식은 단순한 역사 지식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분별하며 미래를 책임지는 의식이다.

* 오피니언 면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칼럼



고명희 목사
벨렐교회

아프리카의 건조한 사바나에는 비가 자주 내리지 않는다. 하지만 한 번 폭우가 쏟아지면 물은 가장 저항이 적은 곳을 따라 흐르고, 그렇게 생긴 물길은 다음 비가 올 때도 똑같이 반복되며 점점 더 깊어진다. “물을 통제하지 않으면 물이 스스로 길을 만든다”는 말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역시 의식적인 성찰 없이는 가장 익숙하고 쉬운 길로 흐르기 마련이다. 타인을 이해하기보다 판단하는 쪽으로, 기다리기보다 추측하는 쪽으로, 진실을 알기 전에 결론지어 버리는 익숙함. 우리는 이 무의식의 흐름을 경계해야 한다.

젊은 시절, 사람들을 만나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었다. “자녀가 몇 명이세요?” 나는 늘 “3남 2녀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대부분 “자녀가 정말 많으시네요”라며 웃었다. 그런데 아이들의 성(姓)이 모두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곤 했다. 혈연이라는 익숙한 물길만을 정상으로

여기는 세상이다 보니, 복잡한 사연이나 재혼일 것이라는 편견 어린 오해가 순식간에 교차하며 목사인 나를 바라보는 시선마저 달라지곤 했던 것이다.

우리 가족은 때로 세상의 차가운 시선 한 가운데 서야 했다. 사실 우리 가정에는 배 아파 낳은 자녀들과 목회 현장에서 심장으로 품은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진 가정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청소년들을 보면 심장이 요동치고, 상처받은 아이들의 아픔에 유독 예민한 걸까” 늘 품고 있던 질문의 답은 성경을 읽다 뜻밖에 찾아왔다. 사무엘하 21장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이라는 구절에 시선이 머무는 순간, 알 수 없는 감동과 함께 깨달음이 스쳤다.

1960년대 신아제한 정책 아래, 신부인과 의사였던 아버지가 시대의 강요로 감당해야 했던 낙태 시술. 아버지가 젊은 날 짝이었던 그 아픈 생명의 무게를,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살려내는 사역’으로 갚으라 부르시는 것은 아닐까. 그제야 청소년들만 보면 무심하게 떠돌던 내 심장의 이유가 온전히 이해되었다. 나는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바울의 고백이 내 안에서 메아리쳤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부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 내 증언이시니라”(골 1:8).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들을 사랑하겠다는 기도는 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고, 나는 기쁜 어른이 필요한 영혼들을 해나를 가슴으로 품기 시작했다. 물론 가족의 성(姓)이 제각각이라는 이유로 쏟아지는 편견 앞에서, 처음에는 억울한 오해를 풀고 싶어 일일이 사연을 설명하려 했

다. 하지만 내가 해명할수록 정작 아이들이 “친자식이 아니다”, “사연 있는 아이들이다”라는 세상의 잣대 앞에 고스란히 내몰리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기꺼이 침묵을 택했다. 내게 덧붙여진 오해를 벗어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내는 일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기꺼이 서로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그렇게 26년이 흘렀다. 나를 향한 오해는 안개처럼 걷혔지만, 편견 속에서 서로의 방패가 되어준 시간은 사랑으로 질게 남았다. 가슴으로 품은 아이들은 혈연을 넘어 굳건한 신뢰로 묶인 자매이자 제자다. 내 목회의 가장 눈부신 열매로 자리잡았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사랑만으로 능히 온전한 가족을 이룰 수 있음을 하나님은 내 삶으로 증명해 주셨다.

물은 저절로 가장 쉬운 길을 택해 흐른다. 우리의 마음도 사정을 듣기보다 추측하고, 이해하기보다 결론으로 규정하는 편견의 도랑으로 흘러가기 쉽다. 그러나 복음은 그 안일한 관성을 거스르는 십자가의 저항이다. 우리를 잊는 그대로 품으신 주님의 사랑은, 고여 있는 혈연의 한계를 넘어 스스로 새로운 길을 내는 결단이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에 선다. 세상이 터놓은 편견의 물길에 휩쓸릴 것인가, 주님이 내신 희생과 사랑의 물길을 따를 것인가. 낯설고 험한데라도 기꺼이 생명의 길을 터 나가는 단호한 신앙이 이 때마다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나는 오늘도 익숙한 세상을 거슬러, 기꺼이 그 좁고 생명력 넘치는 길 위에 선다.

성결신문사

등록번호 서울 다 50663(2003년 9월 17일 창간 /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을 준수합니다.

발행인 이충만 사장 김충현 편집인 권순달 후원회장 박근주 인쇄인 배성한
(주)성결신문사 030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가길 11(행촌동 1-29 총회회관)
대표전화 070-7132-0091~5 홈페이지 www.sknews.net
광고신청안내 070-7132-0091 독자기고·제보 sknews12@daum.net
●구독료: 1개월 4,400원 / 1년 44,000원(VAT 포함)
●후원·입금계좌: 국민은행 533301-01-16871 4(주식회사 성결신문사)

design 지원3월역

adm
admhaus.com

이제 정장면 박사의
심층적이고 세밀한 이단 강의를 통해
그 실체가 파헤쳐진다.
(전,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이단과타종교」 강의)

이단, 무엇이문제인가?

세미나 특징

- 하나님의 교회(안상홍증인회)와 3년 3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의 실제 이야기
- 이단의 계보를 통한 시대적 특징과 발생원인 분석
- 이단의 빠지는 이유와 문제점 파악
- 성경해석의 바른 이해
- 주요 이단들의 주장과 특징
- 이단 예방과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신청 & 문의 010.8200.2693
모든 공 예배시 꼭 필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집 "뜨거운 찬양 · 기도로 교단 영성 깨운다"

이상문 부총회장 목사 후원,
‘목회자 · 사모 찬양팀’ 싱어 및 연주자 모집

교단 영적 부흥과 예배 회복을 위한 ‘목회자 · 사모 찬양팀’이 신설된다.
이번 찬양팀 구성은 최근 이상문 부총회장 목사의 제안과 적극적인 후원 약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교단 내 찬양과 악기 은사자들을 발굴해 다가오는 하계수련회와 내년 동계수련회에서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찬양팀의 주요 목적은 수련회 기간 동안 영성이 살아있는 뜨거운 예배를 주도함으로써 교단 목회자들의 영성을 깨우고 영적 부흥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에 교단을 사랑하고 찬양의 은사가 있는 목회자와 사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천을 기다린다. 모집 요강은 다음과 같다.

■ 모집 요강

▷ 목적: 하계 및 동계 수련회 시 교단 영적 부흥을 위한 찬양 인도 및 기도회인도

▷ 지원 자격: 교단 소속 목회자 및 사모 (찬양 및 악기 은사자, 주변 추천 가능)

▷ 모집 부문

- 찬양 인도: 1명
- 간반: 2명 (메인 1명, 세컨 1명)
- 베이스 기타: 1명
- 싱어: 남성 4명, 여성 4명 (총 8명)
- 기타: 일렉기타 1명, 어쿠스틱기타 1명
- 그 외 악기: 바이올린 등 관현악기 0명

■ 문의 및 접수

- 새에탄교회 김영국 목사 (☎ 010-5516-0091)

“찬양과 악기의 은사를 통해 교단의 예배를 깨우고 영적 부흥의 마중물이 될 목회자, 사모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